

진안 매력·명소 '한눈에'

종합홍보책자 '진안고원여행' 발간... 관광명소·농특산물·체험 등 담아

진안군은 12일 진안의 매력과 명소를 한 권에 담은 종합홍보책자인 2021년도 '진안고원여행'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최신 사진과 정보, 관광명소를 새롭게 편집하고, 12.5cm×20cm 크기로 약 130쪽 분량으로 2000부를 제작했다.

올해는 진안군 대표 도시브랜드 '진안고원' 브랜드를 활용하여 '자연놀이터'를 주제로 일러스트 이미지로 아기자기한 표지 디자인을 입혔으며, 첫 페이지에는 세계적 관광지인 마이산에 밀집된 관광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이산 상세도'를 수록했다.

진안고원여행은 진안을 대표하는 ▲마이산 ▲용담호 ▲산·계곡 ▲길·꽃 ▲역사 ▲포토존 ▲관광코스 ▲축제 ▲진안홍삼 ▲농특산물 ▲체험 ▲기타정보 등 12개 테마별 분류로 구독자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담은 수준 높은 사진과 함께 설명을 곁들여 진안에 대한 흥미와 호기도를 높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접이식 '진안군 관광안내도'를 첨부해 진안군의 관광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방문객 안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



진안군은 진안의 매력과 명소를 한 권에 담은 종합홍보책자인 2021년도 '진안고원여행'을 발간했다.

고 주요 관광명소, 종합관광안내소에 비치해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또한 국내·외 교류행사나 관광객 유치 박람회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황양의 기획홍보실장은 "여행도 영화가 되는 아름다운 진안고원의 다양

한 매력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한권에 담았다"며 "이 책자가 진안을 찾는 이들에게 요긴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진안군의 대표 홍보 책자인 만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코로나19 전파 차단 방역대책

휴가 후 일상 복귀 전 진단검사·의심 증상 있을 때에는 즉각 검사

장수군은 12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 추세에 따라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안내했다.

장수군에 따르면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다가오는 광복절 연휴는 되도록 집에서 보내고, 휴가를 다녀왔을 경우 내 가족·이웃·직장 동료 등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유행중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무증상 환

자도 많아 관련 증상이 없더라도 일상 복귀 전에는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선별검사 후 의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군에서는 철저한 방역 대책을 실시하겠다"며 "군민들도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방역대책 동참은 물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적극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무주군이 여름철 식품안전을 위해 수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점검을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인 관내 마트 및 시장 등 10여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수산물을 유통하는 업체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지 또는 진열대 인근의 꽃말에 소

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법률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품목별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은창 농업정책과장은 "명절이 다가오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위반 가능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수산물 유통업체 점검으로 관내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형 푸드플랜 수립 박차

푸드플랜 예비계획·먹거리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진안군은 12일 상항실에서 전춘성 군수 주재로 군 의원, 지역 농협장, 교육청 관계자, 생산·소비·유통분야 대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푸드플랜 예비계획 및 먹거리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푸드플랜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환경

을 배려하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생산, 유통, 소비뿐만 아니라 안전, 영양,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합관리 하는 종합전략이다.

진안군은 전춘성 군수의 민선7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인 푸드플랜을 계획하고, 본 계획 발판 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푸드플랜 예비계획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말부터 먹거리 실태 조사, 행정협의회 구성, 읍면 리더 설

명회, 금식 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치며 진안군의 먹거리 종합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으며, 7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금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컨설팅을 맡은 용역업체는 최종보고회에서 진안군의 현재 먹거리 실태에 대한 분석 후 진안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먹거리 정책 통합조정을 위한 먹거리 전담부서 설치 ▲먹거리 접근성 확대를 위한 공공형 푸드플랜 지원센터 설립 ▲기획생산을 통한 관계시장 형성 ▲공공 조달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의 보편적 먹거리 보장 ▲소통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군은 용역결과와 참석자들의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안군 푸드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있을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에 대응하고 22년부터는 푸드플랜 관련시설 기반마련을 위한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모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가게 현판식 가져

나눔재가복지센터·제일인삼사 5·6호점 등록

진안군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철·육원문)는 12일 관내 자원을 활용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가게'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에 현판 전달식을 진행한 착한가게는 2개소로 ▲나눔재가복지센터(최옥미) ▲제일인삼사(김영희)이며, 진안읍 착한가게 5, 6호점으로 등록됐다.

착한 가게에 동참한 최옥미 대표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착한 가게에 가입하게 됐다"며 정기기부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번 착한가게 현판식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착한가게를 발굴하고, 모금사업에 동참시킨 것으로 협의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안읍 소금창고만들기' 연합모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착한 가게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일정액을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말한다. 착한 가게로 선정되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작한 현판을 전달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법정 기부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눔문화 캠페인이다.

최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여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착한 가게에 동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착한 가게 발굴과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원문 진안읍장은 "어렵고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저소득기구를 위해 선뜻 정기기부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울수록 나눌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야외결혼식·야외촬영 지원 사업자 공개모집

진안군은 기존 실내결혼 문화에서 벗어나 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결혼식을 갖는 신혼부부의 '진안군 야외결혼식·야외촬영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이를 위해 사업을 맡아 추진할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2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9월~11월까지 신혼부부 5쌍을 모집하고, 야외결혼식과 야외촬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결혼식은 진안군의 아름다운 문화관광명소인 산악초대원, 마이데마공원, 명인명품관, 용담호 변, 부귀면 메타세쿼이아길 등 선정된 예비부부들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예비부부는 결혼식 장소 세팅, 야외촬영 등 부부당 260만원 정도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며 문의는 진안군 관광과 관광정책팀(063-430-2503)으로 하면 된다.

예비부부는 별도의 신청 자격은 없으나, 피로연 시 관내음식점 이용과 결혼식 후 SNS,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진안군 관광홍보에 동참해야 한다.

특히 결혼식 당일 진안군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진행해야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토종붕어 종자 4만여 마리 하천에 방류

장수군은 수산자원 증식 및 친환경 생태계 보전 도모를 위해 12일 전천면 일대 하천에 토종붕어 종자 4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자연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어족자원 조성 및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어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뤄졌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 참여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다.

이날 방류한 붕어 치어는 전라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3개월간 사육관리를 통해 4cm까지 성장시킨 것으로, 방류 후 2~3년이 지나면 20cm 내외로 성장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